

미래 재생에너지에 모든 역량 집중

전북개발공사 창립 20주년 맞아 사회적 가치·성과 창출 박차 행안부 경영평가 우수·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1등급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 이하 공사)는 2019년 1월 11일 창립 20주년을 맞이 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1999년 설립 당시 자산 1,401억, 자본 847억원, 정원 43명으로 출범하여 2018년 현재 자산 6,171억, 자본 2,932억원, 정원 73명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고 부채비율도 2014년 305%에서 110%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사업량 부문은 3,721세대의 임대주택을 관리·운영하고 최근 임실·장수 농어촌 임대주택을 완공하여 지역 주민들은 입주했다.

또한, 전주완주 혁신도시,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만성지구는 실수요자 택지 254필지를 분양 완료했다.

전북도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모

항 하나투어 가족호텔은 2012년 준공하여 8년째 운영 중이며 새만금 투자유치 마중물로서 새만금 관광단지 게이 트웨이 조성을 위해 민자 유치 추진 중이다. 공사에서 발주한 사업은 도내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간담회, 도내자재를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공사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매년 우수등급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도 지방공기업 중 유일하게 내부청렴도 1등급을 2년 연속 받았다.

임대주택 고객만족도 제고 노력으로 최근 4년 연속 경영평가 입주주민만족도 점수가 상승했다.

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 창출 성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018년도 공사의 우수성과는, 크게 최근 8년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우수등급 획득, 사회적가치 TF 운영,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계획 수립·실행,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 채용(12명), 갑질근절, 공정 합리적 거래관행 확립, 사회적 기반 책임경영 체계 확립, 만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수요자 택지 완공, 임실·장수 농어촌 임대주택 준공,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유일 내부 청렴도 1등급 획득, 그간의 부단한 경영혁신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한 경영실적의 증가 등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아울러, 공사는 도민의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 창립 20주년에 걸맞은 경영환경 조성, 도민 상생 프로젝트 추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공간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19년도 중점 경영방향을 밝혔다.

2019년 주요 추진사업으로 만성지구 A2블럭 830세대 공공임대 착공, 진안 무주 농어촌임대주택 공사, 시군과 협력하여 농어촌지역 2개소 임대주택 건립, 신규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서민주거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정부 3020계획의 이행, 새만금 지역 내 300메가와트 6,600백억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지속가능한 지방공기업 토대 마련, 실수요자 중심 택지공급, 공동주택관리 확보, 임대주택 지속 공급 등이다.

공사는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지원센터 운영에 참여할 계획이다"며, "이와 별개로 전북형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자 슬로프를 추가 개장, 스키어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무주리조트 스키장 추가 슬로프 오픈

대회코스인 파노라마·썬다운 슬로프 등 잇달아 개장

지난해 12월 초 2018~19 동계시즌을 시작한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자 슬로프를 추가 개장, 스키어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최근 대회코스인 파노라마와 썬다운 슬로프를 개장했다. 지난날 말 초보스키어를 위한 서역기행과 상급자 코스인 프리웨이를 개장했으며, 1월 초 상급 스키어 코스인 아파가를 오픈한 데 이어 추가 개장 슬로프를 추가했다.

무주덕유산리조트는 6.1km의 국내 최장 실크로드 슬로프와 국내 최고 경사도(76%) 레이더스 슬로프 등 다양한 난이도의 국제규격 슬로프 34면을 보유하고 있어 많은 스키어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1월 초 다양한 슬로프를 추가로 개장하며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면서 "초급, 상급 등 레벨에 맞게 슬로프를 선택해서 스키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상호협력, 소통' 전북건설의 새로운 출발 알려

대건협 전북도회 신년인사회 가져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는 10일 기해년 새해를 맞아 전북 건설인, 유관기관과 함께 기해년 희망찬 출발, 새로운 도약, 화합을 다짐하는 '2019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호텔트윈에서 펼쳤다.

2019 건설인 신년인사회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성환 전북도회의장, 도내 유관단체장, 역대 건설인 원로, 회원 대표 등 200여명 참석으로 대성황을 이뤘다.

정대영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지난 한해 건설업계는 정부의 SOC 투자 저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최저 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소회하며 "협회에서 수년전부터 수원사업체 우대기준 마련, 새만금 남북도로 농·생명용지 공사,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공사에 적용해 준 결과 지

역업체 참여 비율 최대 40%까지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 지난해 도내 지역업체의 수주 누계액이 26.2% 까지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또한, "수고해 주신 전북도, 정치권, 건설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더불어 협회에는 건설관련 다양한 제도적 개선점을 도출, 해결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자"고 밝혔다.

아울러 정회장은 "회원사 간 상호협력 소통을 강화하여 상생 발전으로 도내 건설업계가 전북도 지존급 회복에 주도적인 노력 할것을 당부했다"며, "우리 건설인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의 열매에 관심을 갖고 나눔의 행복건설, 사랑의 미래건설을 실천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건설단체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구심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기해년 히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가 10일 기해년 새해를 맞아 '2019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호텔트윈에서 펼쳤다.

망의 새해를 맞아 정성을 다할 때 비로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절차탁미의 자세로 건설업계에서도 지역도민의 소통과 협업·협력을 통해 새롭고 활기찬 전북 건설 산업을 이룩하자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편, '건설산업 활성화, 도정발전, 교육 시설 분야, 청렴문화 정착,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한 9명의 건설인 유공자들에게 전북도지사, 전북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지역본부, 지자체협력사업 229억원 지원

전북농협은 시장개방 확대,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등 '농업, 농촌'의 위기 상황에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 활력화를 위해 '2018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189여개 사업을 발굴, 229

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협의 지자체협력사업은, 지역 부존자원의 부가가치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농업을 활성화 시킬 목적으로 농협이 전북도 14

개 시군과 함께 실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2018년도에 중앙회와 도내 농·축협이 229억원, 지자체 315억원, 농업인 자부담 27억원 등 총 사업비 571억원을 투입, 시군별 특성에 맞는 농업인 실익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북도와 함께 6

차산업화, 통합마케팅 상품기반 구축 사업 등을 통해 도내 농산물 판매증진, 통합마케팅 참여농가 확대를 위해 노력했고 원예용 비가림 하우스 지원(남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완주), 드론 공동방제지원(순창)을 통해 강소농 육성에 토대를 마련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서남상의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전북서남권(정읍,김제,고창,부안)지역 상공인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김적우)는 10일 정읍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서남권 지역 상공인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지역 상공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세계를 상대로 물류와 교통의 허브이자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을 꿈꾸어 왔으나 새만금사업은 개발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 전북도민은 물론 서남권 지역민들은 새만금은 많은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준 애증이 교차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북도민의 절대적인 성원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하여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우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절차상 이유로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공인들은 새만금 개발에 있어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돼야 할 핵심기반 사업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항 목표시점인 2023년 개항은 불가능하게 되며, 2023 세계잡버리의 성공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지역 상공인들은 강력히 촉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